0331

FLUTE

-기명악기, 다른 목관악기들과는 달리 리드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관에 바람을 넣는다. 뚫어진 구멍을

손가락으로 막거나 열어 음의 고저를 조절함.

-현대에 사용되는 플루트의 키 시스템은 1847년 독일 사람 '테오발트 뵘'에 의해 완성됨.

ㄴ 뵘 시스템은 플루트 연주자이자 악기 제작ㅈ이기도 한 테오발트 뵘이 플루트를 위해 개발한 운지 체계, 오보에,

클라리넷, 색소폰과 바순도 뵘 시스템의 영향을 받은 운지 체계를 가지고 있음.

-종류 : piccolo, flute, alto flute, bass flute, contrabass flute, sub-contrabass flute 등

ㄴ contrabass flute는 한국에 존재, sub-contrabass flute는 한국에 없다고 함(?)

-음역 : Alto Flute은 G키의 이조악기, Bass Flute은 한 옥타브 밑, Contrabass Flute은 두 옥타브 밑

플루트를 활용한 현대주법

(1) 소리를 확장하는 효과

1. 플러터 텅잉 (Flutter Tongue) : 목젖을 떨어서 내거나 혀를 r'발음으로 굴려서 내는 두 가지 방법

ㄴ 트레몰로 표기 넣어준 후 flz. flz.이 보다 더 공식적인 명칭으로써 사용됨. 하지만 (flt.)로 사용해도 알아보는데 문제 X

2. 하모닉스 : 배음을 낼 수 있는 플루트의 기본원리를 근거로 하여 한 운지에서 기본음 대신 더 높은 음을 낼 수 있는 주법

ㄴ 잡을 운지를 다이아몬드로 잡고, 실음을 원래 음표대로 표기해준 후, 그 위에 작은 동그라미 ~^

ㄴ 점선 슬러를 사용해주는 게 일반적인 표기법

3. 휘슬톤 (Whistle Tone) : 배음(*)에 근거를 둔 높은 음역 안에서의 아주 작은 휘파람과 같은 소리가 나게 하는 주법.

일반적으로 플루트의 제 1 옥타브의 기본 운지로부터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, 운지에 따라 변화하는 스펙트럼은

배음음계에 따라 달라짐.

ㄴ 1옥타브 내의 음역에서 한 음을 잡고 쭈욱 늘린다.

ㄴ 음을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하고 있던 휘슬톤을 끝내고 바꾼다.

ㄴ 정확한 음정을 불어주지는 않으며(그런 주법이 아님), 플룻계에서만 가능한 주법

ㄴ 현악기의 하모닉스와 상당히 잘 어울리는 주법. 휘파람같이 희미하고 옅은 소리와 현악 하모닉스에서의

약음기같은 볼륨과 음색이 잘 맞음

4. 젯 휘슬 (Jet Whistle) : 제트기를 발사하는 것처럼 공기의 폭발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주법. 먼저 플루트의

마우스피스를 입술로 물듯이 완전히 막고, 강한 공기를 폭발하듯 세게 내뿜음. 대개 음높이가 낮은 운지일수록 풍부하게

공명됨

ㄴ 표기법으로 곡선 화살표를 사용하지만, 직선 화살표를 사용해도 무방하다.

ㄴ 하얀 동그라미 안에 .을 찍어 넣으면 주로 그것을 '에어사운드'라고 하는데, 젯 휘슬에서도 많이 사용.

ㄴ Jet Whistle, J.W 등 다양한 표기법이 있다.

ㄴ sFF, mf<<<<FFF 등 강력한 다이나믹 표기가 필수적!

ㄴ 음고가 낮아야함. 그렇게 해야 음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많아지기 때문.

5. 트럼펫 앙부쉬르 : 트럼펫의 앙부쉬르처럼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입술의 긴장과 공기의 압력 그리고 공명되는

공간의 조화를 통해 얻어짐. 즉, 아랫입술과 윗입술을 단단하게 누르고 내뿜는 강한 공기 압력을

통해 관을 진동시킴.

ㄴ 마우스피스 홀을 통해서 분다

ㄴ 헤드 조인트를 빼고 본관인 바디 조인트로, (리코더 처럼)

ㄴ 표기는 'Trumpet embouchure'

5. 노래와 동시에 연주 : 가사를 넣는 게 아닌, 우~~음처럼 인성을 동원한 테크닉.

ㄴ Flute 과 Voice, 2개의 단을 사용해서 표기해야 함

(2) 타악기적 효과

1. 피치카토 : 텅과 립 피치카토로 구분 / 차이는 사실상 거의 없다.

ㄴ 텅 피치카토(Tounge Pizz.) : 혀 끝으로 취구를 치듯이 내뱉음으로 얻는 주법

ㄴ 립 피치카토(Lip Pizz.) : 두 입술 사이로 강한 공기를 폭발하듯 내뱉는 주법.

2. 키 클릭 : 키를 강하게 쳐서 얻어내는 주법.

ㄴ X로 기보함

ㄴ 야도 무조건 mf, f, f, fff,ff f,f,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등등 이렇게~ / 액션에 가까운 테크닉이기 때문에~

3. 텅 램 (Tougue Ram) : 플루트를 의도적으로 울리게? 만드는 주법. 7도 낮게 그 음을 확장시키는 강한 어택

ㄴ 'T.R.' 이라고 표기해줌

ㄴ 밑에 울릴 음은 역삼각형으로 표기해줌, 실 운지포인트는 다이아몬드로 표기해주고 괄호를 붙여줌

4. 비브라토 : 현대음악에서도 비브라토를 하나의 주법으로 활용할 수 있음

ㄴ n.v - vibr. - m.v (molto vibrato) 와 같이 표기하거나 비브라토의 진폭이나 속도를 곡선으로 표현하기도 함.

4.5 트릴 : 미분음 표기를 동반한 트릴을 사용하기도 함

ㄴ 사용법 : m.v 후 그 트릴 사용~

5. 바람소리 (Air sounds) : 공기음향을 가지고 음색을 변화시키기에 적합함. 일반적으로 제 1옥타브의 운지내에서 활용

ㄴ 다이아몬드로 표기됨. 아무 운지도 안 잡고 이걸 사용하고 싶을 때는 타악기 Clef ㄱㄱ

6. 말과 연주 (Speaking and Playing) : 연주자가 단어나 텍스트를 입으로 마우스피스 홀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주법.

'Vocal Articulation'이라 불리기도 하는 k, t, sh, tsch, h 등과 같은 발음을 통해 악기 몸체의 공명을 얻을 수 있.

ㄴ X표기 밑에 발음기호를 적는게 대표적인 표기법

7. 비스비글리안도 (Bisbigliando) : 음색트릴이라고도 함. 한 음에 더욱 활력있는 음색을 더하기 위해 활용

ㄴ 하모닉스와 표기방식이 거의 비슷함. 거기다가 두 음 사이에 트레몰로를 더해주면 완성~

ㄴ bisbigl. or bisb.이라고 약자를 표시한다고 함

8. 미분음과 글리산도 : 플룻에서도 당연히 잘됨. 취구를 조금만 굴려주면 소리가 수우우우우우우우욱~

ㄴ 그냥 미분음을 툭 던져놓으면 현악기와는 다르게 관악기 연주자들 입장에선 상당히 난감

9. 멀티포닉스 : 플룻에서도 가능. 최적이라고는 못함.

*들숨날숨은 주로 화살표로 표기를 해준다.

Toshio Hosokawa - Vertical Song1

ㄴ Playing and Singing 주법에 주목할만a

음악감상은 피아노 하나 플룻 하나

notation은 적혀있는 것을 어떤 소리가 나는지,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등 적으면 됨

악곡분석은 조건이나 질문에 맞게 분석을 잘 하면 됨~

0407

0407

Flutter Tongue : 목젖으로 하는 방법과 혀로 하는 소리가 있는 데, 목젖으로 할 때 소리가 좀 더 뚜렷한 소리가 난다고 한다.

ㄴ 아직까지 굳~이 목젖으로 해달라고 하는 곡은 본 적이 없다고 한다. 그래서 차이는 무방할 듯?

Harmonics :

Whistle Tone : 소리가 굉장히 작다.... 무대에서 효과가 있을려면 일신아트홀 정도 크기는 되야 잘 울릴 듯.

ㄴ 휘슬톤은 다이나믹이 너무 크면 현실성이 없다.

Jet Whistle : 음정이 상승하다가 어느순간 떨어짐. 얘는 1옥타브 내일 때 효과적(D#까지)

ㄴ 음가를 길게 쓰면 상당히 곤란하다.

Tongue Ram : 1옥타브 내일 때 효과적. 와인 코르크 따는 뚱!하는 소리 (낮은 음정일 때 효과적일 듯?)

ㄴ 피콜로 같은 경우는 음고가 거의 느껴지지 않음

Trumpet embouchure : 트럼펫 앙부쉬 불 때의 입모양으로 해야함. 앞 뒤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며,

연주자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듯?

Singing and Playing :

Pizzcato : 텅과 립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, 소리에 큰 차이는 없는 듯하다..

ㄴ 템포가 빠르면 굉장히 어렵다

ㄴ 1옥타브 이상 음정이 올라가면 계속 빙빙 돌게 된다.

ㄴ 피치카토 하면서 오버블로잉은 힘듦

Key click : 특정 음정을 정하지 않으면 X자로 리듬만 표시를 하겠...?

Vibrato : 국악처럼 할 수도 있고, 그 표기법 방식은 결국 작곡가의 의도에 따라서 크게 나뉘어 있는 듯?

바람소리 : 공기량이 많을 수록 특정 음역대 이상을 올라가게 되면 음정이 빙빙 맴돌게 된다.

말과 연주 : 원하는 건 웬만하면 다 쓸 수도 있지만, 바람소리가 많이 섞여나오게 될 것이다.

ㄴ 발음 옆에 (u)를 붙여주면 바람소리를 불어넣어 주면서 ㅣ모;히ㅏㅗㄱㅁ해ㅑㅗㄱㅁ해ㅑㅖ뫠ㅑㄴ웋ㄱㄷㅎ

글리산도 : 입으로 하는 것과 키클릭으로 하는 게 있는데, 키클릭으로 하면 입으로 하는 것보다 좀 더 부자연스럽

ㄴ 2도 이상 하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럽

멀티포닉스 : 손가락을 다 표기해줘야 함

ㄴ Pierre Yve Artoud라는 책에 그 손가락 표기가 다 적혀있음~

트릴(트레몰로) : 최저음역 C-Eb / B-D#에서는 핑거링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

헤드 조인트만으로 연주할 수 있는...안쓸거임 ㅅㄱ

ㄴ앞 뒤로 bpm 60 기준으로 최소 한 마디 정도면 좋을 듯?

ㄴ악기가 2개인 경우에는 헤드만 갖다 놓고 연주할 수도 있음